

한국교회와 동역자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례

1995년 히말라야 깊은 산골, 길조차 제대로 나있지 않고 차량도 오갈 수 없던 외진 마을에서 한 청년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낯선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20년을 살고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평범하지만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네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러 지난 달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는 자신이 태어난 산골 마을, 아직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 직접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에서 차로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약 13시간 걸리는 맥디라는 지역입니다. 단 몇 시간의 예배와 교제를 위해 13시간, 때론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인 삶과 사역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의 구속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앞에 다만 고개 숙일 뿐입니다.



교사강습회

지난주 교사강습회를 참여하는 봉마띠 교회 썩기따 사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는

교회에 방문해서 지난 교사강습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만들기를 하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네팔에는 다음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는 교회가 많아, 대부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사강습회는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깨우고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가운데 붕마띠 교회의 순종과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난다반 한센병원



72세 미투 싸제르 할머니의 손과 발을 만져드리면서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팔의 조혼제도로, 할머니도 11세에 결혼했지만 2년 후에 한센병에 걸려 아난다반 병원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센병에 걸리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통보를 받고 친정에서조차 예

수님을 믿는 할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 때만 해도 결혼하면 남편은 그야말로 신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했던대로 할머니도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발 씻은 물을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네팔은 불과 백년 전만 해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기름을 붓고 화장시켰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사실 네팔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양은 달라졌더라도 여전히 억압되고 눌러있는 삶을 살고 있는 네팔의 많은 여성들을 향한 섬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사역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겔 47:9]

저희는 식당을 인수 받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즈니스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있으심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하나 간섭하심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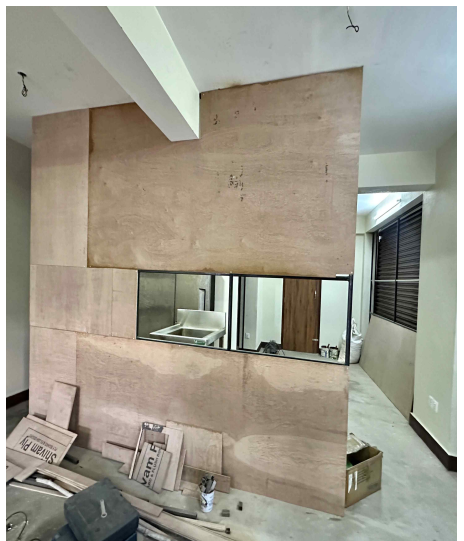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겔 47:9)을 주셨고,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는 비전을 받았 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지 더 기도 하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운영하던 식당 자리가 너무 비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는데, 네팔 대부분의 건물 1층에는 외벽이 없는 곳이 많아 벽을 만들고, 가벽도 세워서 주방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재와 인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저렴한 자재들을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면서 반셀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 가게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들과 동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헌금
으로 가게 인수 금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들은 가게 인테리어와 운영을 위한 설비들(에어컨, POS기계, CCTV, 커피머신, 제빙기, 주방집기들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단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사람을 찾아야 하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팔에 몬순이 시작되다

네팔 몬순(장마)은 10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몬순때마다 길들이 망가지고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식 또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항상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세요.

네팔에서 신민철, 함은진, 신시하 드립니다.